

이 보도자료는 2024. 12. 29.(일)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우진
전화 031-5182-4290 / 팩스 031-5182-4555

보도자료
2024. 12. 29.(일)

번식장에서 사육하는 개를 조직적으로 학대한 운영진 5명 불구속 기소, 직원 5명 약식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개를 학대한 **甲 업체 운영진 5명**을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위반, 건축법위반으로 12.27. **불구속 기소**하고, **직원 5명**을 수의사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요지는
 - (**동물보호법위반 및 수의사법위반**) 운영진은 공모하여, △ '23. 6.~7. 상품가치 있는 자견(子犬)을 꺼내려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하여 개 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 '22. 5.~'23. 8.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상품가치 없는 노견 15마리를 안락사시키고,
 - (**동물보호법위반, 건축법위반**) 대표 A는 '17. 1.~ '23. 8. △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 동물생산업 변경 허가 없이 사육관리시설 3개동 및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고,
 - (**수의사법위반**) 운영진과 직원들은 공모하여, '20. 7.~ '23. 7.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 백신, 항생제 등 의약품 투여하는 자가 진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수사 결과, 이 사건은 △ 동물의 생명과 안전에 눈감고 **이윤만 추구한 경영방식**, △ **가족기업의 폐쇄적 운영** △ 인건비 절감과 수익 증대 목적의 불공정 '**브리딩 계약**', △ 대량 생산·대량 판매를 조장하는 **반려동물 유통구조**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잔혹하고 업기적인 동물 학대**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검찰은 송치 후 사건관계인 진술과 방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수 전문가 의견까지 청취하여 업체 甲의 **수익창출 방식과 유통 구조를 규명**하였습니다.
-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주요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1	A(대표)	동물보호법위반 및 수의사법위반	'23. 6.~7. 상품가치 있는 자견(子犬)을 꺼내기 위해 수의사 면허 없이 커터칼로 살아 있는 모견(母犬)의 복부를 절개하여 개 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B(부대표)		
	D(실장)		
	E(팀장)		
2	A(대표)	동물보호법위반	'22. 5.~ '23. 8. 상품가치 없는 노견(老犬) 등을 안락사시키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개 1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함
	B(부대표)		
	C(본부장)		
	D(실장)		
	E(팀장)		
3	A(대표)	동물보호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17. 1.~ '23. 8.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20. 2.~ '22. 6. 동물생산업 변경허가 없이 사육관리시설 3개동 및 출입구 무단 증축함
4	A, B, C, D, E	수의사법위반	'20. 7.~ '23. 7.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 백신,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하는 자가 진료를 함
	F(주임)		
	G, H, I, J (각 직원)		

2

수사 경과

- '23. 9. 경기도 및 동물보호단체 연합, 현장 단속 및 구조
- '23. 12. 사건 송치
- '24. 4. B에 대한 사건 추가 송치
- '24. 5.~'24. 12. 주요 피의자들 조사 및 법리 검토 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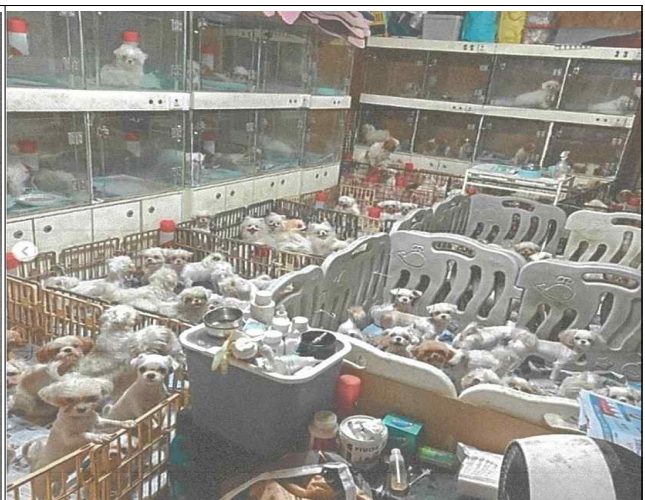
수사 결과

①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개 번식장의 민낯

-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업체 甲이 잔혹하고 열기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실상이 확인됨
- 운영진은 상품 가치 있는 자견을 꺼내기 위해 문구용 커터칼로 살아 있는 모견의 배를 가르고,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자견을 낳지 못하는 노견을 안락사시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함
 - ※ 운영진은 자견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모견을 '전사'하였다고 표현
- 허가 당시 400마리였던 개체 수는 1,400여마리로 늘어나 1평 남짓 공간에 개 15마리가 밀집 사육되고,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사육동에는 케이지(Cage, 동물 우리)를 세로 3단으로 쌓아 관리한 곳도 있었음



케이지를 3단으로 쌓아 놓은 상태



밀집된 공간에 모여 있는 소형견들

- 병원비를 절감하기 위해 백신 투약, 주사 진료 등 면허 없이 자가 진료 행위를 하고, 개의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업체 뒷산에 매립하는 등 비윤리적 방식으로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만 치중하였음



냉동실에 보관된 개 사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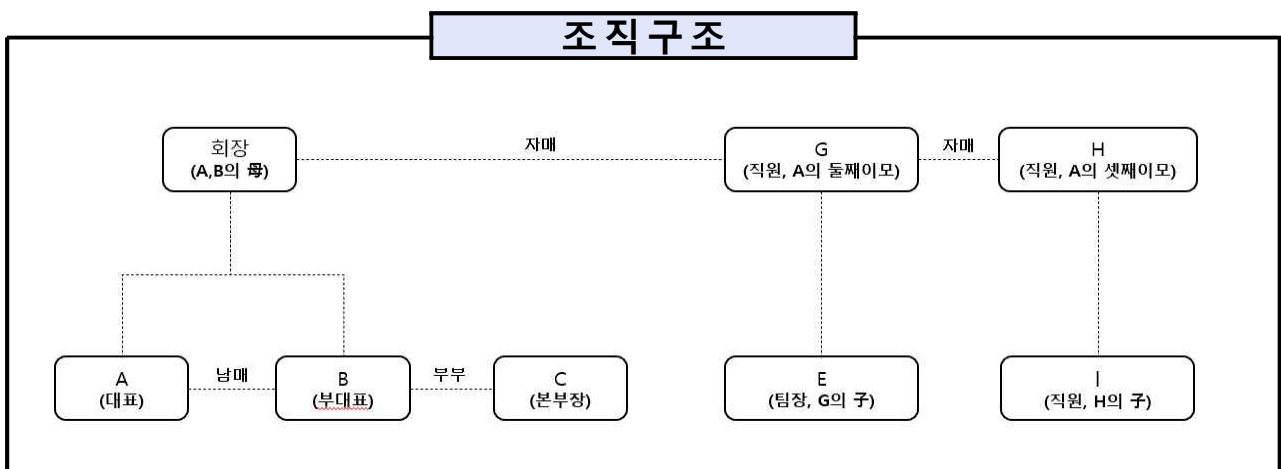
백신 등 동물약품 관리 실태

- 甲 업체는 '23. 6.까지 행정당국의 주기적 점검을 받았으나 동물학대 ·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없고, 내부자 신고 이후인 '23. 9. 비로소 시설 · 인력기준 위반,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음

※ 甲 업체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얻어 행정당국의 주기적 점검을 받은 시설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열악한 운영실태를 보였는바, 동물보호 활동가에 의하면 경기도 일원에 무허가 번식장 수십 개가 난립하며 더 나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함

2 폐쇄적 가족기업과 오로지 수익 증진을 위한 불공정 계약

- 검찰은 사건 송치 후 甲 업체의 비윤리적 운영을 야기한 개 번식업계의 수익창출 시스템과 유통 구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주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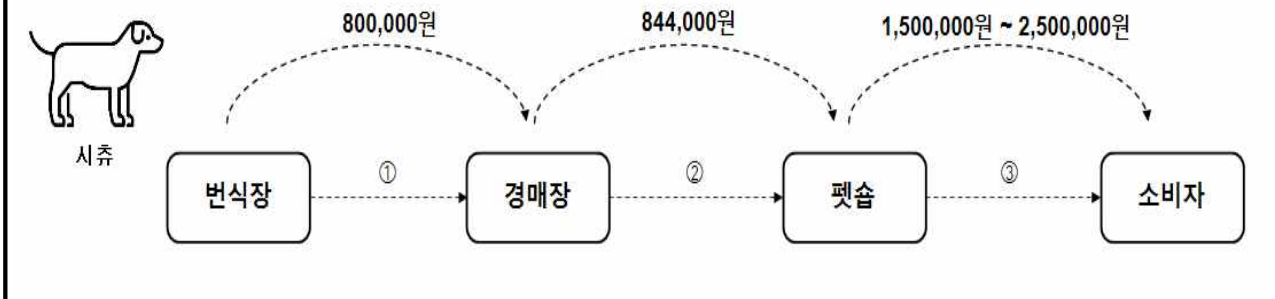


- 甲 업체의 운영진은 '13.경부터 A, B의 모친 명의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였고, '16.경부터는 B가 명의상 대표 지위를 승계하여 철저히 가족과 친척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 가족기업을 운영하였음
- 운영진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브리딩(Breeding)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내용은, 투자자로부터 1인당 투자금 약 1억원을 받고 약 20마리의 모견을 배정한 후 업체에서 모견을 관리하며, 모견이 자견을 생산하면 자견 판매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임
 - ※ 통상 '브리더(Breeder)'는 특정 품종의 특성을 보존·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번식을 진행하는 사람·단체를 의미하나, 업체 甲은 개의 단순 번식 과정을 '브리딩(Breeding)'이라고 표현함
- 甲 업체는 '1년 반이면 투자금을 상회하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모견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어 자견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영진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으로, 운영진이 무조건 수익을 얻는 구조임
- 반면, 투자자에게 배정된 모견은 다른 모견들과 같은 사육동에서 함께 관리되므로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모견과 그 모견이 낳은 자견이 어느 것인지 객관적 구별·확인 불가능함
 - 심지어, 일부 투자자로 하여금 업체에 상주하면서 각자의 모견을 관리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직원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건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기도 하였음
- 이처럼 가족기업의 폐쇄성, 운영진과 투자자 모두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브리딩 계약의 특성 등 구조적 원인으로 약 10년간 甲업체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운영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음

③ 대량 생산 · 대량 판매를 조장하는 유통 구조

- 업체 甲에서 생산된 미니 시츄, 미니 말티스, 극소형 푸들과 포메라니언 등 초소형 유행견종은 경매장에 출하되어 펫숍으로 유통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3단계 유통구조를 가짐

유통구조



※ 경매장은 낙찰가의 약 5.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펫숍은 운영 비용 및 중간 유통 마진을 추가하여 판매 가격 설정

- 번식장에서는 경매장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초소형 '인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개에 사료를 최소한으로 공급하므로 초소형 견종은 저혈당, 영양결핍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 대량 생산 · 대량 판매로 인한 번식장에서의 조직적 동물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반려동물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품는 선택'이라는 문화와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함

4 향후 계획

-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엄정 대응하겠음 〰